

제2차 환경개선증기종합계획 수립

<편집부>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국무총리(고건) 주재로 재정경제원장관(강경식), 내무부장관(강운태), 통상산업부장관(임창렬), 환경부장관(강현욱) 등 12개부처 장관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조해녕),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정광모), 환경운동연합 대표(이세중) 등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환경개선증기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2차 환경개선증기종합계획(’97-2001)”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장기계획(환경비전 21)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친 환경개선증기종합계획은 환경부, 통산부, 건교부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하고 131개의 투자 및 시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투자소요는 32조원 정도이다.

이번 제2차 증기계획의 특징은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외적으로는 OECD 가입에 따른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의 제고

환경정책개발.국제관계업무 및 집행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합리적 기능분담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할을 점진적으로 제고함은 물론 지역환경계획 모델의 개발.보급, 환경보전시범도시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환경관리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자치단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수계별로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

입하고, 울산공단 등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 총량규제를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 조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염물질에 대한 지역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상.하류지역 등 환경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한다.

2. OECD 가입에 따른 환경기준의 선진화

대기환경기준을 2001년까지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한다.

- SO₂(ppm, 연평균)
 - 0.03(현행), 0.02(개선목표)
 - WTO 기준 ⇨ 0.015-0.023
- TSP(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연평균)
 - 150(현행), 100(개선목표)
 - WTO 기준 ⇨ 60-90
- PM-1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연평균)
 - 150(현행), 100(개선목표)
 - WTO 기준 ⇨ 70

또한 경유의 황함량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동차 연료 품질을 아래와같이 강화한다.

- 경유 황함량 : 0.1 이하(현행), 0.05 이하(’98년(신설))
- 휘발유·방향족함량 : 50 이하(현행), 45 이하(’98년(신설))
 - 방향족함량 : 50 이하(현행), 45이하(’98년(신설))
 - 벤젠함량 : 5이하(현행), 4이하(’98년(신설))

수질환경기준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질소,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60, 8mg/리터에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먹는 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통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수를 현행 45개에서 85개로 강화한다.

3.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

기존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구축한다.

- 생활폐기물 관리

(단위 : %)

	현행 ('95)	신설
재활용	23.7	35.0
소각	4.0	20.0
매립(위생매립)	72.3(65.7)	45(100)

4. 환경관련 기초시설의 확충

2001년까지 하수처리율을 65%까지 제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환경관련 기초시설을 1997부터 2001까지 △ 하수처리시설 155개(10,322천톤/일), △ 하수관거 정비 19,792km(신설 15,452km, 개보수 4,340km), △ 분뇨처리시설 68개소(5,357입방미터/일), △축산폐수처리시설 26개소(5,050입방미터/일),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43개소(870천톤/일)등으로 확충한다.

또한 단순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회수 방식의 소각처리를 확대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아래와 같이 제고한다.

- 종합처리시설
 - 도시형 : 사업지역수 9개소
 - 처리능력 : 소각 1,220톤/일, 재활용 500톤/일
 - 농촌형 : 사업지역수 63개소
 - 처리능력 : 매립 17,352천톤
- 소각시설 : 사업지역수 43개소

- 처리능력 13,980톤/일
- 매립시설
 - 광역 : 사업지역수 21개소
 - 처리능력 : 314,843천톤
 - 단독 : 사업지역수 31개소
 - 처리능력 : 17,553천톤

5.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용수량 확보와 지역별 물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남강·용담·부안·횡성·밀양 등 다목적댐과 보령댐을 '99년까지 완공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2001년까지 21개 건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33%에서 66%로 제고한다. 또한 하천표류수를 직접취수하는 방식외에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 방식을 개발하며, 오염원이 적은 계곡에 식수전용저수지를 건설하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상수도 보급률을 2001년까지 90%로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설 등을 확충한다.

이에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시설 215개를 확충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65개소, 지방상수도 81개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

6. 기타

환경교육장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환경보전시범학교의 확대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환경보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RAMSAR 협약 등 가입이 필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입을 위해 국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한반도 생태계의 단절·고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기·하천 등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남·북 환경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같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재원별로 공공 22조, 민간 10조가 분야별로는 대기보전 10조, 수질보전 13조, 상수도관리 3조, 폐기물관리 5조 등 총 32조가 소요될 전망이다.